

고위험 분쟁지역에서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전략 간담회

SDGs 16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



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SDGs 목표 16번
평화, 정의 및 포용적 제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.

정치·사회적 불안정 및 분쟁이 지속되고 폭력,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
글로벌 목표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정적인 기업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.

그러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많은 기업들이 취약·분쟁 및 고위험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.

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재정, 환경, 사회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
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, 번영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기업 및 투자자들은 고위험 지역의 환경에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
통찰력을 축적해 왔습니다. 본 간담회에서는 취약·분쟁국 진출에 있어 책임있는 경영,
세계은행 사업 사례 및 UNGC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(B4P)를 통해
평화를 위한 기업활동 참여방안을 논할 예정입니다. 본 간담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일시: 2019년 7월 5일(금) 14:30 - 16:30

장소: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1 (B2F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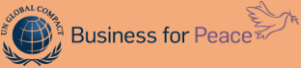
주최: 세계은행 한국사무소,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

대상: 고위험 분쟁지역 진출 관심 기업, UNGC 기업·기관 대표 및 실무진 (25인)

***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마감입니다**

프로그램

시 간		프 로 그 램
14:30 - 14:40	10'	인사말 - 박석범,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- 소훈섭,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표
14:40 - 15:20	40'	취약·분쟁국가에서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및 세계은행 협력 사업 - 정다운,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선임담당관
15:20 - 15:50	30'	평화를 위한 비즈니스(B4P) 및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이행 지침 - 이은경,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
15:50 - 16:30	40'	토론 및 질의응답



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(Business for Peace) 플랫폼이란?

'평화를 위한 비즈니스(Business for Peace)'는 기업이 직장, 시장,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, 민간부문의 활동을 증대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해외의 분쟁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, 노동, 환경, 반부패 원칙에 따라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세계은행그룹 FCV (Fragility, Conflict and Violence) 부서 소개

2009년부터 기획재정부와 신라기금 협력을 시작했으며 2018년 하반기에 한국사무소 설립되었습니다. 분쟁, 취약성, 폭력 등 고위험 지역의 개발지원을 하며, 주로 FCV 관련 데이터 분석, 정치경제 상황 모니터링 및 연구 분석, FCV 국가 전략 수립 및 정책 제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, 유엔, NGO, 연구단체, 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 및 기아, 난민 등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신청: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(gckorea@globalcompact.kr)

문의: 임애화 선임연구원 02-749-2150